

인문대학 ‘메타감각연구단’ 소개

박준상*

본교 인문대학의 ‘메타 감각 인문학’ 연구단이 한국 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 2022년에 선정되었다. 연구 주제(연구과제명)는 ‘호모 햅틱쿠스와 촉각인문학: 현실세계에서 가상세계로(Homo-Hapticus and Tactile Humanities toward the Virtual Reality)’이며, 본 연구에서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의 촉각과 감각 일반의 특징을 철학적·문학적·미디어생태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메타버스에서 구성 가능한 촉각과 미래의 감각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그 방향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참여자들은 박준상 교수(철학과), 이찬규 교수(불어불문학과), 김태용 교수(문예창작과), 최정선 교수(영어영문과), 이동후 교수(인천대 신문방송학과), 이은아 교수(서울대 미학과)와 연구원 이진호 박사과정생(철학과)이며, 장미성 교수(철학과)가 객원연구원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들을 주축으로 연구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이뤄질 예정이다.

이 연구는 전통적으로 정신·의식보다 하위에 놓여 있다고 여겨진 촉각·감각 일반에 대한 연구이자 메타버스에서의 그 재현 (불)가능성에 대한 연구이다. 미개척 분야에 대한 연구이고, 또한 디지털 기술이 지배하는 현재의 현실 세계의 중요한 한 측면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현재의 디지털 기술이 마주하고 있는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감각·지각(촉각)을 어떻게 기술을 통해 재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이 문제와 연관 하여 메타감각연구단은 두 연구 주제를 설정했다. 두

*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는 감각·촉각(지각)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이며, 최종적 관건은 감각·촉각(지각)과 기술의 연동 가능성과 그 실현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현재 본 연구단은 한편으로는 기술(현재의 첨단 디지털 테크놀로지)과 감각·촉각이라는 두 연구 주제와 연관된 고전적 텍스트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마찬가지로 두 연구 주제와 연관된 여러 분야(철학·미학·기술·미디어·문학·예술)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특강들을 개최하고 있다. 첫 번째 특강은 10월 6일 목요일 오후 두 시 웨스트민스터홀 549호에서 전북대 자연과학대학 과학학과의 심혜련 교수가 ‘체현된 매체공간에서의 이미지와 지각’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 특강뿐만 아니라 이어질 다른 특강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기를 기다리며, 또한 연구단이 진행하는 세미나(현재 함께 읽고 있는 텍스트는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이며, 이후에 이어질 텍스트들은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느끼고 아는 존재』와 상탈 자케의 『몸』 등이다)에도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본 연구단의 단원들은 각자 다른 분야에서 촉각·감각과 기술에 대한 연구를 이미 수행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좋은 분위기에서 중지를 모아 연구 계획서를 기획하고 작성할 수 있었고, 현재도 이 두 주제를 모두 작지 않은 관심과 흥미를 갖고 함께 연구하고 있다. 각 단원에게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송실대 인문대학이 그동안 연구재단 사업에 약간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인데, 마지막으로 이번의 연구를 계기로 연구재단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해드린다.